



기상이변, 지각변동, 핵 위기, 그러나 지구종말은 없다!

우리는 왜 2013년을 주목하는가?

일본은 급전직하하고, 중국은 내부 분열의 흐름이 나타나며, 미국은 대국의 지위와 면모를 잃기 시작한다. 남북통합을 이룬 한국은 동북아로 들어오는 유대인과 조우하는 가운데 인류의 조화를 이끄는 선도국으로 부상한다. 마침내 다가온 지구의 동시다발적 환경위기 앞에 세상은 하나 되어 인류 통합의 시대를 열어간다!



전 지구적 혼란 속에 담긴 궁극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일상화되어 가는 이상기후, 금융위기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위한 변곡점이었다. 시대 변화의 물결이 물질문명 부흥의 경로를 역으로 거치면서 지구촌은 전례 없는 급변과 급진의 파고에 휩쓸린다. 이상기후와 국제정세의 혼돈, 지진과 쓰나미, 핵 공포로 대변되는 불확실성의 시대, 현존하는 수행자의 해안으로 혼란 이면에 숨은 미래의 희망을 예견한다!

지금까지 인류가 겪어 온 위기는 아무리 큰 갈등이었다 해도 인간이 만들었기에 다시 협상을 통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진정한 위기가 아니었다. 앞으로는 자연환경의 위협 앞에서 인간의 모든 노력이 무력해지는 상황이 온다. 즉 진정한 위기가 다가온다. 이는 인류와 지구의 모든 시스템이 분열, 상극을 넘어 상생과 통합이라는 새로운 질서로 전환되어야 하는 시기에 이르렀음을 암시한다. - 본문 중

가장 높은 곳을 지향하는 인간의 도전과 노력, 그 경이로운 여정의 대단원은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 것인가. 지진으로 인한 일본인의 만주 이주 가능성, 북한 수뇌부의 심리를 통해 유추한 통일 시나리오, 핵분열을 넘어 다가온 핵융합 에너지 시대, 북극항로 개설로 시작될 한반도 십자교류 시대, 빛의 상생을 통한 인류의식의 도약, 그로 인해 이루어질 인류 문명의 비약적 발전 등, 현대적이면서도 구체적인 예측으로 미래의 궁극적 모습을 제시한다.

예언을 전하는 이유는 '확정된 미래'를 알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확정될 미래'를 바꾸는 데 있다!
나와 우리 앞에 놓인 희망과 절망의 시나리오에는 무엇인가?



세상의 기원과 인류의 대단원을 말하다

石門思想 석문도문 / 양장본 / p516 / 58,000원

석문 사상

출간 2010년 12월 24일 | 출시 2011년 3월 4일

- 고전과 현대, 미래가 공존하는 책이다. 전반부는 동양사상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현대적인 필치로 국제정세의 흐름을 예견한 중-후반부는 글로벌 시대를 이끄는 리더 분들에게 권하고 싶다. 『프로 바둑 기사(9단) 백성호』
- 세상을 움직이는 비가시적 흐름이 있다는 것은 믿기 힘들다. 그러나 이 책의 응용 편이 국제 정세의 숨겨진 이면을 너무나 예리하게 파헤치고 있다는 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다. 『에일대 법대 JD, 변호사(美) 이성권』
- 인류가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미래는 공학 시스템이 가야 할 미래와 다르지 않다. 이 책은 그런 미래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를 다각도로 제시하고 있기에 흥미롭다. 『포항공대 기계공학과 교수 정완군』
- 기존의 저서들과는 다른 관점에서 세상의 '있음being'과 '흐름flow'를 해석하고 있어, 이를 찾아가고 발견하는 데 독자의 즐거움이 있을 수 있겠다. 머리보다는 가슴으로 읽어야 할 책이다. 『카이스트 금융전문대학원 교수 김동석』
- 양자론을 확립한 보어나 하이젠베르크 같은 위대한 물리학자들도 동양사상에서 과학적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한다. 『석문사상』에는 이러한 영감과 통찰력을 일깨우는 수많은 코드들이 존재한다. 『전남대 생명화학공학과 교수 권오윤』
- 동서양을 뛰어넘는 범지구적, 범우주적 관점의 세계관이 하나의 정합적 인과관계 아래 설명되고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읽어볼 만한 가치가 있다. 『방송작가 유영주』
- 「우주 변화의 원리」와 같은 명저를 접한 동양사상 연구가나 한의학자라면 반드시 일독을 권하고 싶다. 충분히 그 이상이다. 『홍대 란 한의원 원장 오재성』

교보문고, 예스24, 인터파크, 알라딘, 반디앤루니스, 영풍문고 등 전국 서점(인터넷 포함)에서 절찬 판매 중!

석문출판사 (TEL)031-246-1360 (FAX)031-253-1894